

# “국제협력 네트워크 절실해요”

## 불교계 활동가 첫 워크숍서 한목소리



불교계 국제협력활동가들은 9월 15~16일 도봉순수마을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국제협력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약한 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교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제3세계와 재해국가를 드나들며 국제구호와 협력활동을 펼치는 불교계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OC)에 등록된 59개 단체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협력단체는 총 70여개. 이 가운데 불교단체는 지구촌공생회, 정도회 한국JTS, 진각복지재단, 경보련 이웃을돕

는사람들 등 4개 뿐이다. 28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개신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해외원조비 총액면에서도 불교계의 활동은 개신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KOICA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NGO해외봉사단도 불교단체는 2곳으로 개신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은 총 10개 단체가 15개국에서 벌이는 긴급구호와 개발구호, 해외자원봉사 등이다. 그러나 불교단체간 비효율적인

경쟁과 겹치기 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교계 국제협력활동가들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찾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주최로 9월 15~16일 서울 도봉순수마을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불교계 국제구호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돼 왔지만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워크숍에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국제포교사회 등 14개 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첫 모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에서는 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갖가지 과제들이 쏟아졌다.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교리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불교 네트워크 구축, 공동대응기구 결성, 연대사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불교계 활동가들은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정기적으로 실무자회의를 열어 단기간 활동과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단기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박병영 기자

## 동북공정 물의 빛은 中 사회과학원에

## 동국대 홍기삼 총장, 항의서한 보내

동국대 홍기삼 총장이 최근 ‘동북공정’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을 9월 19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홍 총장은 항의서한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일부 학자들이 양국의 상호 존중과 평화 진전을 꾀는 활동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동아시아 고대 역사를 왜곡하고 있

는 논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사태는 시시비비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오늘의 한국인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밝혔다.

홍 총장은 중국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학술강연을 할 계획이었지만, 강연을 취소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 사찰음식 보러 오세요

## ‘한 브랜드 박람회’서 전시

조계종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찰음식 연구 및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한 브랜드 사업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9월 15일 ‘진통사찰음식문화 보존회’를 결성했다. 회장은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부회장은 홍승 스님(사찰음식연구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사찰음식보존회는 첫 사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한 브랜드 박람회’에 참가해 사찰음식을 전시한다. (02) 3011-1775 여수령 기자

## ‘불교환경의제21’ 선포 4대 실천사업 선정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는 9월 27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환경의제 21 선포식을 개최한다.

불교환경의제 21은 △불교환경

기본의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환경 관련 불교단체들은 △빈그릇운동 △사찰생태 모니터링 △친환경 공양미 유통 △환경5계 제정·실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영 기자

# 한가위 복지관에 情 넘치네

## 송편나눔·무료급식·의료품 전달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올해 한가위는 징검다리 휴일까지 포함해 최대 10일에 이르는 대휴(大休)가 될 전망이다.

긴 명절기간 동안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을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 불교계 복지관이 마련한 한가위 축제에 참가해 어려운 이웃과 한마음을 나누는 의미있는 한가위를 보내보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솔마을710동 앞 소

공원에서 ‘송편으로 나누는 행복한 세상’을 진행한다. 이날 경연대회에 출품된 송편들은 한솔복지관이 써서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장애인에게 전달한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로 시집 온 이주여성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 9월 30일 열리는 ‘어울림 한마당-풍성한 가을 한가위’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이주여성 50

명이 조를 이뤄 함께 한가위 음식을 만든다.

이주노동자 쉼터인 구미 보현의 집은 10월 1일 ‘제7회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가위 큰잔치’를 개최하고 연휴기간 내내 쉼터를 개방한다.

이밖에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펼치고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의료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추석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 기관명         | 행사일시      | 행사내용   | 전화번호            |
|-------------|-----------|--|-----------------|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9월 26일    | 훈훈한 한가위 정 나누기행사. 장애인·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쌀, 한과, 감자떡 등 전달, 미니바자회 개최     | (02)989-4215-8  |
| 관천종합사회복지관   | 9월 28일    | 추석맞이 행사 및 기화만사성  | (02)507-6319-22 |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9월 28일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행사 및 송편빚기                                       | (02)985-0161    |
| 능인종합사회복지관   | 10월 12일   | 어르신 260명 대상으로 팔순잔치 및 위안공연, 종식제공                                | (02)577-5800    |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 9월 30일    |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한가위행사. 쌀놀이, 팔씨름 대회, 투호던지기, 떡메치기 등의 민속놀이대회 및 무료건강검진 | (02)817-8052-3  |
| 삼천종합사회복지관   | 9월 27일    | 장애, 비장애 아동 한가위 한마음대축제, 어르신 추석선물전달                              | (02)421-6077    |
| 연평노인종합복지관   | 9월 30일    | 추석맞이 후원물품집수  | (02)385-1351    |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9월 27-29일 | 재가어르신 추석선물 나누기   | (02)282-1100    |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9월 27일    | 자비의 쌀 나눔행사   | (02)806-1377    |
| 한솔종합사회복지관   | 9월 28일    | 송편으로 나누는 행복한 세상  | (031)716-4215   |
| 원종종합사회복지관   | 10월중      | 추석차례음품 나누기 행사 및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제수음품 나누기 행사                | (032)644-0108   |
|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9월 30일    | 결혼이민자여성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풍성한 가을 한가위’                              | (033)762-8131-2 |
| 구미보현의집      | 10월 1-8일  |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가위 큰잔치  | (054)458-0775   |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9월 20일    | 한가위맞이 선물음식만들기 프로그램   | (053)476-7700   |
|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10월중      | 저소득장애인가구에 의료품 전달   | (054)633-6415-8 |
| 광산구장애인종합복지관 | 9월 30일    | 추석맞이 재가장애인 후원금전달   | (062)943-0420   |

## 추석 템플스테이 어디가 좋을까

## 청춘남녀 만남·수행·전통놀이 등 주제 다양

긴 연휴가 예상되는 올 추석,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박하고 아름다운 추석을 맞이하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에 따르면, 먼저 구례 화엄사(061-783-7600)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달빛 아래 일곱날’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템플스테이에서는 계곡참선, 달빛참선 등 다채로운 수행프로그램 뿐 아니라 추석에 맞아 송편 빚기, 조상을 추모하는 고성염불기도 등 한가위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해남 대흥사(061-535-5775)는 보다 소규모 단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새벽술집 산책, 일지암 산행 및 연연 스님과 차담, 명상음악과 함께 하는 자유정진, 스님과 숲놀이 한끼, 추석차례시연, 붓글씨쓰기, 달마그리기 등이 작은 행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주 굴골사(054-744-1689)는 ‘큰 달과 함께 선무도 춤을’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부안 내소사(063-583-

3035)도 가족과 함께 중추절을 보낼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다.

특히 고양 흥국사(02-381-7970)는 명절만 되면 친척들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미혼남녀들을 위해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청춘 남녀들의 천년 만남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문화와 불교 문화를 동시에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계룡 무상사(042-841-6084)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2006 추석 참선 정진-Retreat’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자광사(042-822-9220), 연등국제선원(032-937-7033)도 외국인들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남동우 기자

## 부산 개신교 청년집회 불교계 진상조사 나서

지난 6월 “사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며 종교갈등을 조장한 부산 개신교청년집회 ‘Again 1907 in Busan’과 관련,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청년회, 부산불교신도회 등 부산지역 불교단체들은 9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산 스님은 “불교를 말살하려는 개신교 청년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진상조사와 법적·물리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조계종 종교평화위도 9월 20일 논평을 통해 “이웃종교 간의 노력들이 ‘화합과 평화’라는 결실을 맺어 가고 있는 지금, 일부 교회의 청년들의 비이성적인 발상과 유아적인 행위는 이웃종교 간 대립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몇몇 선동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비판적이지 못하고 따라갔던 그들이 안쓰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박병영·이은비 기자

## 지역 종교연합 문화행사 중지협서 1500만원 지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관, 이하 중지협)는 “지역의 종교간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하고 종교문화행사를 권장하기 위해 지역 종교문화행사 지원공모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9월 21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서울지역 외에서 3개 종교 이상의 종교단체가 연합으로 주관하는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문화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행사에는 총 1500만원이 지원되며, 10월 9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한다. (02)720-8776 박병영 기자

## 강원도, 봉은사에 감사패

“수해로 고통 겪었지만 불교계의 도움으로 아픔 잊었습니다.”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가 강원도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9월 20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를 방문했다.

김 도지사는 봉은사 법랑루에서 주지 원혜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긴 시간동안 큰 도움을 준 봉은사 사부대중에게 300만 강원도민을 대표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지난 수해때 50명씩의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피해복구지원사업을 펼치고 5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은비 기자

# 법장대종사의 열반 1주기를 맞으며 종도여러분께 드리는 글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법장대종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스님의 우렁찬 음성이나 귓전에 울리고 그 활기찬 모습이 눈에 선한데 스님의 법신은 어디에 계시는지! 다만 저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할 뿐입니다.

되돌아 스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스님은 정녕 산중과 종단발전에 헌신한 원력보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화두인 환경과 생명에 대한 실천운동에서 스님의 참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5년 창립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의 활동을 통해 스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을 서약하셨습니다. 나아가 북한동포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 탈북자 대책, 국제난민구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한국 불교의 사회참여운동을 적극 주도해 왔습니다.

- 스님께서서는 2003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이란 기조하에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해 어느 때 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 한국불교 분규의 상징인 구 총무원청사를 철거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의 입주라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종단의 분장 ‘삼보륜’을 확정했으며, 대종사 법계 폄서식을 거행하여 법계제도를 재정립하셨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외감사제를 추진해 종무행정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금을 확보하여 2004년 착공하였습니다. 포교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분되어 있던 신도회를 통합하고, 유명무실했던 국회 정각회를 제17대 국회에서 재정립토록 하셨습니다.

- 남북교류와 국제참여불교 활동면에 있어서는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신계사 북한봉사단을 시작하여 2004년 11월에 대웅전 낙성식을 거행하였고, 민족통일대축전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간의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북한과 미국간의 입장차이로 중단되어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을 만나 불교적 평화사상으로 이들을 설득한 일은 국가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수해지역을 복구하여 조계종마을을 조성하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는 등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재임중에 원로스님들의 부름이 있으면 천리길도 마다않으셨고, 어린 학인들도 주저없이 맞이주셨습니다. 사회각계의 인사들의 방문과 각종 행사도 잠시도 쉴 틈 없이 그렇게 늘 바쁘셨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일들을 성취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스님을 모셨던 부·국장의 교역직 스님들과 재가종무원들의 노고도 심대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사 시절부터 스님을 따르고 뒷바라지 했던 신도와 많은 불자들, 각계 인사들의 관심과 지원에 저희는 지금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때로 일에 대한 열정이 비해 현실이 따르지 않아 스님께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는 즈음에 중앙박물관계약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저희들이 큰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건 공사가 엄정하고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지 않는 시비와 다툼은 종단을 위해서나, 스님의 영전에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종회에서 결성된 특위에서 조사하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모든 논란이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바랄뿐입니다. 나아가 훗날 일부 부족함과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대화함과 관용의 미덕이 발휘되기를 고개 숙여 염원합니다.

## 법장대종사 문도일동 합장 배례